

광주 문화재단 무엇을 할 것인가

美 선진 예술재단 연세 화상 인터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세계 문화예술기관들에게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악재였다. 개인이나 민간기업들의 기부에 의존하는 미국의 예술재단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대부분의 미술관이나 공연장은 너도 나도 허리띠를 졸라맸다. 당장 '돈이 안되는' 교육프로젝트들은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뉴욕링컨예술센터(링컨센터)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미적체험(Aesthetic Education) 교육프로그램을 늘리거나 학교와 빈민가를 더 찾아다니며 학업에 찌든 학생들과 삶에 지친 소외된 이웃들을 위로했다. 특히 링컨센터의 교육기관인 인스티튜트(Lincoln Center Institute for the arts in education·예술교육원)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20년간 링컨센터 인스티튜트를 이끌어 가고 있는 스캇 노브랜던(Scott Noppe Brandon) 대표로부터 문화재단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왔다.

스캇 노브랜던 뉴욕링컨센터 인스티튜트 대표



지난 25일 광주아메리칸 코너에서 열린 화상인터뷰 모습. 박진현 선임기자, 토마스 언더우드 주한 미국 대사관 지역총괄 담당관(앞줄), 광규호 광주문화재단 홍보협력팀장, 박호재 문화정책실장(뒷줄 왼쪽부터).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청소년 예술교육 투자가 문화재단 성공 밑거름”

대한민국 생활금융

우체국예금

우체국예금이 2011년 새로운 슬로건으로 국민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속에서 금융서비스를 전하는 우체국예금. 1년 365일 국민곁에서 대한민국 생활금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현 문화예술 선임기자

-링컨센터 예술교육원의 설립취지는 무엇인가.
▲다양한 미적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잠자고 있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깨우는 것이다. 가령 일상에서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 동기를 부여하고 예술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티칭 아티스트' (Teaching Artist·예술강사)와 학교를 연계시킨 예술교육이다. 평소 전시회나 음악회 등을 자주 접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티칭 아티스트들이 직접 교실로 찾아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재단은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시민들 미적의식 심는데 적극 나서야

-그렇다면 미적체험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한마디로 '좋은 관객'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저 공연장의 빈자리를 채워 줄 유료객이 아니라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춘 애호가 말이다. 진정한 관객이란 자신만의 시각(viewpoint)으로 공연과 전시를 듣고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개인적인 소양 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교육이 필요하다.
-링컨센터의 미적체험교육은 최근 전 세계 문화재단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적체험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찾는 기회가 많다는 사례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링컨센터의 '시도'가 처음부터 잘 통했던 것은 아니다. 사실 지난 10년동안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수학, 과학 등 주요과목을 중시하는 일부 학교와 학부모는 예술교육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예술교육을 진행했더니 가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육프로그램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요즘과 같은 경기

침체에서도 예술교육을 강화하는 비결이 있다면.
▲아마도 '내공'이 쌓였기 때문이 아닐까.(웃음) 사실 경제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 생각에 위기는 5~10년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위기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흔히 형편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집어드는 카드가 '삭감'(cutback)이다. 물론 수입이 감소하니 불필요한 거품들이 없으면 밀히 살피야 하는 건 당연하다. 이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동시에 재단의 설립취지도 되돌아 봐야 한다는 점이다. 무조건 줄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예술재단은 일반 기업과는 다른 '공적'(公的) 성격이 강한 조직이다. 재단은 예술의 힘을 매개로 사회를 통합시키는 지주(anchor)이자 중추(hub)이다. 위기일수록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내실을 다져야 한다. 건강한 사회조직은 위기 때 단련되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문화재단이 출범했다. 예술교육 전문가로서 조언을 준다면.
▲근래 2년동안 서울문화재단 초청으로 2번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재단 관계자들의 열정에 놀랐다. 재단은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사회적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훌륭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시민들의 미적 의식을 심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재단의 공연장을 찾는 관객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문화적으로 아우르는 지휘자가 돼야 한다.
-오늘(25일)은 마침 광주문화재단의 문예진흥기금 배분 관련 설명회가 있는 날이다. 예술가들을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이 있다면.
▲링컨센터는 작가들의 '사회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물론 실력이나 작품성도 보지만 자신의 재능을 사회와 공유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냐 없느냐를 가장 중시한다. 링컨의 티칭 아티스트들은 이러한 심사를 거쳐 선택된 예술가들이다. 능력과 인성, 열정 등을 갖춘 예술가들은 링컨센터의 교육과정을 거쳐 일선 학교나 문화현장에 파견된다. 미국 예술가들의 93%가 이러한 사회적 참여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끝)

잘 나가던 무용가서 예술교육가 변신 즐거운 예술 주창...미적체험교육 선도

스캇 노브랜던은

오하이오 주립대 출신으로 잘 나가던 무용가에서 예술교육가로 변신한 이색경력 소유자. 1987년 링컨센터 인스티튜트(LCI) 협력국장으로 링컨센터와 인연을 맺은 후 1995년부터 LCI대표를 맡고 있다. 예술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고 즐거움을 깨닫게 하는 미적체험교육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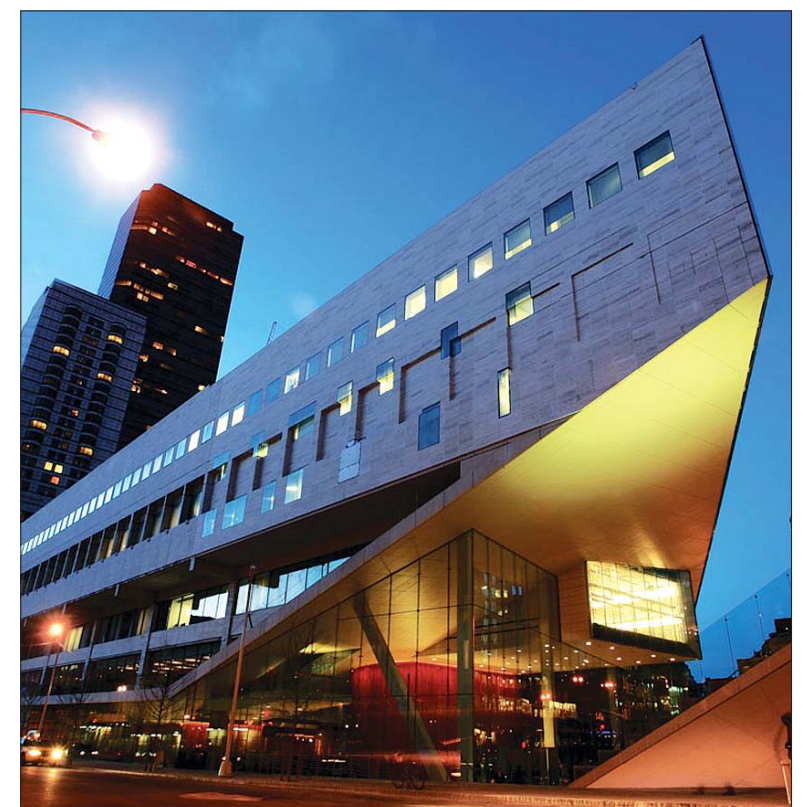
도사로 활동중이다. 링컨센터의 교육 모델을 지향하는 전미 미학교육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오하이오 예술위원회에서 창의력, 상상력, 혁신 등을 강조한 예술교육 커리큘럼인 '상상력 회의'(Imagination of Conversation)를 주창해 주목을 받았다. 저서로 미적체험교육서인 'Imagination First' 'Community in the Making' 등이 있다.



1962년 개관한 음악·무용·연극·오페라·발레 종합예술센터

뉴욕 링컨센터는

지난 1962년 뉴욕 맨하튼에 동지들 틈 링컨센터(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는 음악·무용·연극·오페라·발레 등 다양한 예술을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흔히 링컨센터로 부를 때는 뉴욕메트로폴리탄 하우스, 엘리스 트리 콘서트 홀, 줄리어드 음악학교 등 5개의 건물과 그 안에 상주하는 예술 단체를 모두 지칭한다. 이 가운데 링컨센터 인스티튜트(LCI·예술교육원)은 1975년 예술교육의 대중화와 예술가의 사회참여를 목표로 개관한 교육기관이다. 미국 21만7000개 학교에 티칭 아티스트(TA·Teaching Artist)를 파견하는 등 전세계 1300만 명의 아이에게 예술교육을 제공해오고 있다. TA는 아이들을 공연장으로 불러 관람시키던 기존의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해 착안해낸 일종의 예술강사다. 현재 이곳에 소속된 TA는 100여 명에 이른다.



링컨센터의 엘리스 트리 콘서트홀.